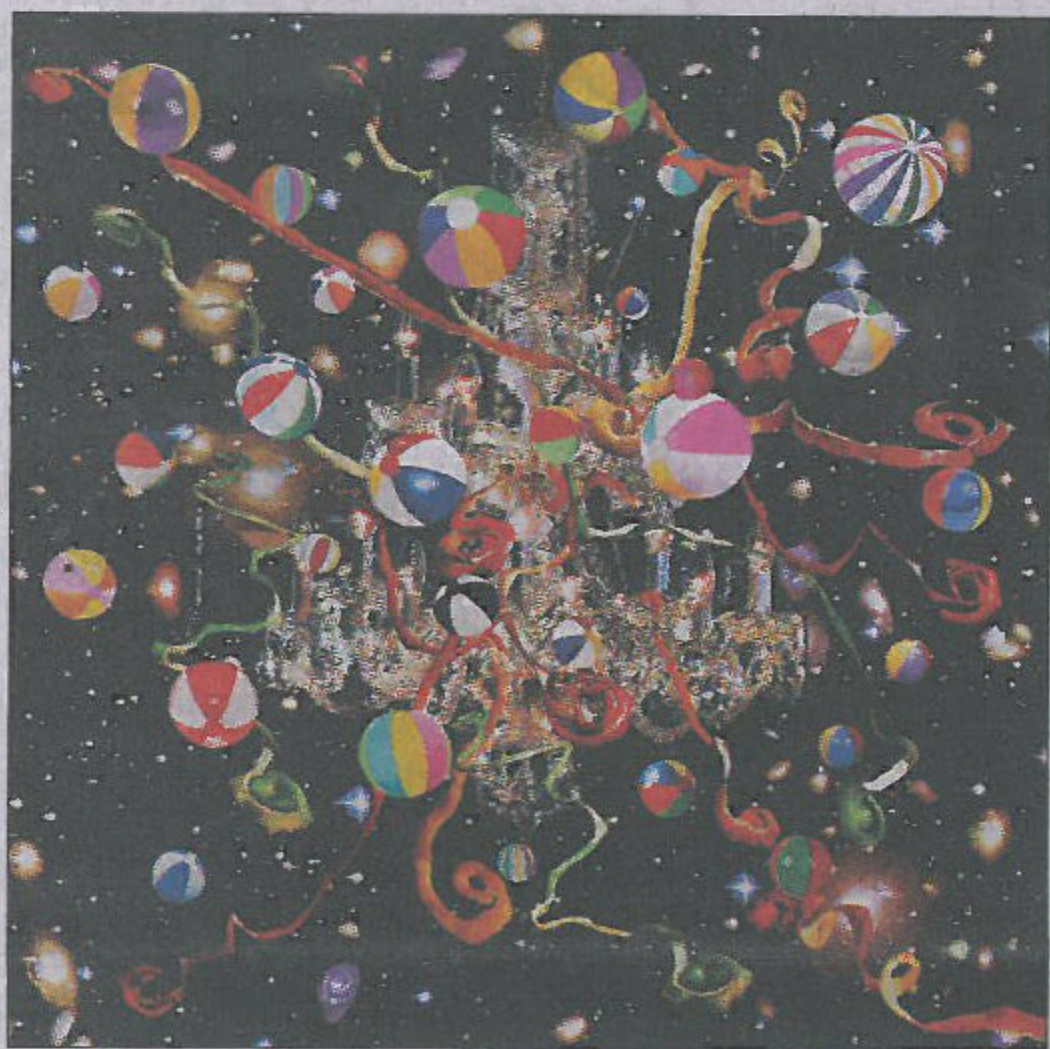


아트 갤러리

함경아 '체스판이 ...'



함경아 '체스판이 동틀 녘까지 그들을 지체시킨다. 두 색이 증오하는 냉혹한 영역에' 189×189cm, 2013년. /사진제공=국제갤러리

파티가 열리는 고급 저택의 무도회장, 높은 천장에서 샹들리에가 빛난다. 투명한 유리 조각들을 통과하며 어지럽게 산란하는 빛의 화려함. 작가는 샹들리에에서 산업화가 한창이던 근대 서구 열강의 식민지 공관을 떠올린다. 그 공간의 권위와 욕망 같은 것. 그림에서는 샹들리에가 어둠 속에 화려하게 빛나며 축포가 터지고 불꽃놀이처럼 오색 공과 리본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지만 주위를 밝히기보다는 홀로 빛나는 축제다. 가만히 보면 빨강·초록·노랑 리본은 사과껍질. “언젠가 TV에서 탈북자의 인터뷰를 봤는데 요즘도 하루에 사과를 다섯 개씩 먹는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먹었는데 지금도 너무 맛있다고요. 주변에 그 흔한 사과를 말이죠.” 이 두 이미지를 그는 역설적으로 화려하게 표현했다. 사진으로는 느끼기 어렵지만 이 작품은 실로 수놓은 자수 작품. 사진에 디지털 작업을 더한 후 복한으로 전달해 1년여의 수작업으로 완성됐다. 그래서 작품에는 항상 몇 명이 몇 시간 작업한 것인지 표시돼 있다. 이 작품에는 4명, 1,600시간이 필요했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2~3관에서 오는 6월4일부터 7월5일까지. /이재유기자 0301@sed.co.kr